

# 국어의 끝

유현주 선생님



 수능 국어의 시작

 문법의 끝

 문학의 끝

 독서의 끝

[www.mimacstudy.com](http://www.mimacstudy.com)

[www.facebook.com/yuhyunju.teacher](https://www.facebook.com/yuhyunju.teacher)

[cafe.naver.com/youteacher](https://cafe.naver.com/youteacher)

2014학년도 4월 고3  
전국연합학력평가 A형  
11~15번 문법 해설

## 《상위 오답률 5위》

1위 : 39번 (58.5%)

☞ 고전시가

2위 : 13번 (58.0%)

☞ 문법

3위 : 14번 (55.4%)

☞ 문법

4위 : 29번 (54.8%)

☞ 독서(기술)

5위 : 42번 (54.7%)

☞ 고전소설

수능을 제외한 모든 시험은 시험을 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. 틀린 문제는 왜 틀렸고, 맞은 문제는 어떻게 맞았는지 잘 생각하며 복습해 주세요. ^^

질문 있으시면 강의 게시판, 페이스북, 카페 등 모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. ^^\*

11 - 음운의 변동 - 【정답 - ③】

(정답해설) <선생님의 설명>에서는 음운의 변동 중 '축약'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다. (가)는 자음 축약인 거센소리되기이고, (나)는 모음 축약 중 어간에서만 축약, (다)는 모음 축약 중 어간과 어미의 축약으로 구분했는데, 이를 바탕으로 ㉠~㉣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.

㉠의 '입학'은 '입'의 종성인 자음 'ㅍ'과 '학'의 초성인 자음 'ㅎ'이 충돌하여 '이팍'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발생하고, ㉡의 '좋다며'는 '좋'의 종성인 자음 'ㅎ'과 '다'의 초성인 자음 'ㄷ'이 충돌하여 '조타며'로 발음되기 때문에 역시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. ㉢의 '나났다'는 본래 '나누었다'(어간 '나누-' + 어미 '었다')인데 이것을 '나났다'로 축약했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의 축약이 이루어진 단어로 볼 수 있다. ㉣의 '띄게'는 본래 '뜨이다'(어간 '뜨이-' + 어미 '-다')인 것을 '띄게'로 축약했기 때문에 어간에서만 축약에 해당하는 단어로 볼 수 있다. ㉤의 '보였다'는 본래 '보이었다'(어간 '보이-' + 어미 '-었다')가 '보였다'로 축약했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의 축약이 이루어진 단어로 볼 수 있다.

12 - 부정 표현 - 【정답 - ⑤】

(정답해설) '예쁘다'의 의지 부정의 짧은 부정문은 '안 예쁘다'이다. 그러나 '꽃'은 형용사이므로, 행동 주체의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행위를 부정하는 의지 부정의 표현 자체가 불가능하다. 그러므로, 단순히 사실을 부정하는 '상태 부정'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.

(오답해설) ① '가다'의 긴 부정문의 명령문은 '가지 마라'가 된다. 부정문의 기본 원리대로 하면 '가지 않아라, 가지 못하라'이지만 이것은 어색한 표현이므로, '-지 마라'가 적절한 예에 해당한다. ② '던지다'의 능력 부정의 긴 부정문은 '던지지 못하다'이므로 적절한 예에 해당한다. ③ '먹다'의 능력 부정의 짧은 부정문은 '못 먹다'이다. ④ '어둡다'의 상태 부정의 긴 부정문은 '어둡지 않다'이다.

13 -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- 【정답 - ③】

(정답해설) 규칙 활용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, 즉 활용 중 어간, 어미가 유지되거나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활동을 말하고, 불규칙 활용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활용할 때 규칙적인 설명으로 할 수 없는 현상을 말한다.

'소나무가 마당 쪽으로 굽다'의 '굽다①'는 '한쪽으로 휘어져 있다'를 의미하고, '어머니께서 빵을 굽다'의 '굽다②'는 '불에 익히거나 타게 하다'를 의미한다. 둘은 뜻은 다르나 소리가 같은 동음이의 관계인데, 이때 '굽다①'은 활용하면, '소나무가 굽다, 굽고, 굽어서' 등으로 실현되어 어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규칙 활용이지만 '굽다②'는 '불에 굽다, 굽고, 구워서' 등으로 실현되어 어간이 변형되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. '굽다'가 '구워서'로 실현되는 것은 불규칙 활용 중 어간의 'ㅂ'이 모음 어미 앞에서 반모음 '오/우'로 바뀌는 'ㅂ' 불규칙에 해당한다.

(오답해설) ① '친구가 병이 낫다'의 '낫다①'은 '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'를 의미하고, '동생이 형보다 인물이 낫다'의 '낫다②'는 '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'를 의미한다. 이때 '굽다①'은 '친구가 병이 낫다, 낫고, 나아서' 등으로 실현되어 어간의 'ㅅ'이 탈락하는 'ㅅ'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고, '굽다②' 또한 '동생이 인물이 낫다, 낫고, 나아서' 등으로 실현

되기 때문에 어간이 변형되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.

㉔ ‘벽에 바른 벽지가 울다’의 ‘울다①’은 ‘발라 놓거나 바느질한 것 따위가 반반하지 못하고 우글쭈글해지다’를 의미하고, ‘시합에 진 어린이가 울다’의 ‘울다②’는 ‘슬프거나 아프거나 너무 좋아서 견디다 못하여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다’를 의미한다. 이때 ‘울다①’은 ‘벽지가 울다, 울고, 울어서’ 등으로 실현되어 어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규칙 활용에 해당하고, ‘울다②’도 ‘어린이가 울다, 울고, 울어서’ 등으로 실현되어 어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. ‘우니’의 경우 ‘용언의 어간 ‘르’ 탈락’에 해당하는데, 이는 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예이다.

㉕ ‘친구에게 약속 시간을 이르다’의 ‘이르다①’은 ‘미리 알려주다’를 의미하고, ‘약속 장소에 이르다’의 이르다②는 ‘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’를 의미한다. 이때 ‘이르다①’은 ‘친구에게 약속 시간을 이르다, 이르고, 일러’로 실현되어 어간의 ‘르’가 모음 어미 앞에서 ‘으’ 탈락과 함께 ‘르’이 덧나는 ‘르’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고, ‘이르다②’는 ‘약속 장소에 이르다’는 ‘약속 장소에 이르다, 이르고, 이르러’로 실현되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미 ‘어’가 ‘러’로 실현되는 ‘러’ 불규칙 현상에 해당한다.

㉖ ‘장작이 벽난로에서 타다’의 ‘타다①’은 ‘불이 붙어 불길이 오르다’를 의미하고, ‘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타다’의 ‘타다②’는 ‘탈 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’를 의미한다. ‘타다①’은 ‘장작이 타다, 타고, 타서’로 실현되어 어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규칙 활용에 해당하고, ‘타다②’도 ‘버스를 타다, 타고, 타서’로 실현되어 어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.

#### 14 - 사전 활용하기 - 【정답 - ㉔】

(정답해설) ㉔의 ‘개구리가’는 서술어 ‘되었다’의 앞에 놓였기 때문에 ‘보어’에 해당한다. 이때 ‘되었다’의 주체는 ‘올챙이’이므로, ‘올챙이가’가 주어에 해당하는 것이다. 그러므로, 조사 ‘가’의 [1]㉔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, ‘올챙이가 개구리로 되었다’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낸다.

(오답해설) ㉑ ‘가’와 ‘이’는 음운론적 이형태 관계이고, 이것은 ㉓의 ‘올챙이가’의 ‘이’ 모음 뒤에서 ‘가’로 실현한 것과 ㉔의 ‘뽕밭이’의 ‘밭’ -종성이 자음 ‘ㅌ’ - 자음 뒤에서 ‘이’로 실현한 것으로 알 수 있다.

㉓ ㉓의 ‘깨끗하지가’는 ‘깨끗하지를’로 바꿔 쓰는 것이 가능하다. 또, 뒤에 부정적 표현인 ‘않다’가 왔으므로, 가[2]에 관한 적절한 설명이 된다.

㉔ ㉔의 ‘뽕밭이’는 서술어가 ‘되었다’이므로 보어에 해당한다. 의미상으로는 ‘뽕밭으로’의 부사의 의미를 갖고, 바뀌게 쓰는 대상을 나타내므로, 이[1]㉔에 해당한다.

㉕ ㉕의 ‘백두산이’는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[2]에 해당한다.

#### 15 - 문법 범주 - 【정답 - ㉕】

(정답해설) ㉕의 ‘-기-’는 행위 주체인 ‘도둑’이 경찰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피동접미사이다.

(오답해설) ㉑ ㉑과 ㉓은 모두 주어인 ‘할머니’와 ‘아버지’를 높이기 위한 주제 높임 선어말 어

미 '-시-'로 쓰였다.

② ㉠의 '-니-'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이고, ㉡의 '-었-'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.

③ ㉢의 '-리-'는 '아버지께서 연을 날게하다'를 의미하므로, '아버지'가 다른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도약을 하게끔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사동접미사로 쓰였다.

④ ㉣의 '-겠-'은 보통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지만, 이 문장에서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 쓰였다.